

## 우크라이나 최근 정치·경제 동향

### 1. 정치 동향

#### □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연정 구성과 총리 인준 성공으로 정치적 안정 강화

○ 2010년 3월 11일 '지역당', '공산당', '리트빈 블록' 및 무소속 의원들이 총 235석의 과반수 의석을 가진 새로운 정당연합을 구성하여 미콜라 아자로프 총리의 인준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음.

- 아자로프 총리 지명자는 러시아 태생이고, '지역당'의 부총재로서 야누코비치의 최측근 인사임.

○ 새로운 정당연합을 구성하는데 실패하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sup>1)</sup>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지역당' 중심으로 정당연합을 구성하는데 성공함과 아울러 측근 인사가 총리로 인준됨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게 되었음.

#### □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유럽 안보조약기구의 창설 지지, 러시아어의 제2공용어 복귀, 러시아 흑해함대의 주둔 연장, 가스 협력 확대 등 친러시아 정책을 취하면서 러시아에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1) 금년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경우 2006년 3월, 2007년 9월에 이어 오렌지 혁명 이후 3번의 총선과 2번의 대선을 치르게 됨으로써 잦은 선거에 대한 국민의 반감과 대규모 선거비용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 양국은 2010년 3월 5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협력 협상을 조속히 진행하고, 통상, 우주, 항공기 제작, 원자력, 나노기술, 군사기술, 정보기술 투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후 러시아와의 가스협상을 통해 2010년 가스 수입 가격을 30% 인하함으로써 연간 GDP의 3%에 이르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 경제 동향

### □ 대내외 경제여건 호전으로 2010년 경기 회복 전망

- 우크라이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외국투자자본 유입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주요 수출품인 철강의 가격 하락으로 수출액도 크게 감소하여 2009년 경제성장률이 -15%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9년 11월을 기점으로 산업생산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세계 철강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다소 호전되어 금년에는 경기가 3.5%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주가 및 CDS 프리미엄 등 금융지표 역시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있음.
  - 주가(PFTS지수): 199.12('09.3.) → 653.35('10.5.21.)
  - CDS 프리미엄 추이: 3,824bp('09.3.) → 1,261bp('10.5.25.)

<표 1> 우크라이나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sup>o</sup>	2010 <sup>f</sup>
경제성장률	7.3	7.9	2.4	-15.2	3.5
산업생산증가율	5.7	10.3	-3.8	-23.2	7.0
재정수지/GDP	-0.7	-1.1	-1.5	-6.5	-6.0

자료: IMF, EIU.

□ S&P, 우크라이나 국가신용등급 'B'로 1단계 상향조정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3대 신용평가기관은 모두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함. S&P는 2009년 2월 신용등급을 `CCC+'로, 피치는 2009년 11월 `B-'로, 무디스는 2009년 5월 `B2'로 하향조정 하였음.
- 특히 S&P는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을 2008년 6월 이래로 2009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4단계나 하향 조정하였으나, 야누코비치 신정부 이후 안정화되고 있는 정치여건과 경제회복세를 반영하여 2010년 3월 B-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5월에도 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함.
- 피치도 3월 전망을 B-(negative)에서 B-(stable)로 상향 조정하였음.

<표 2> 주요 신용평가기관 등급

평가 기관	2008	2009	2010
S & P	B (negative)	CCC+ (stable)	B (stable)
M o o d y' s	B1 (stable)	B2 (negative)	B2 (negative)
F i t c h	B+ (negative)	B- (negative)	B- (stable)

주: 5월 26일 기준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3. 향후 전망

□ IMF의 금융지원 조만간 재개될 전망

- 2009년 11월 마지막 4차분인 60억 달러(40억 SDR)가 집행<sup>2)</sup>될 예정이었으나, 2010년 1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되면서 잔여 차관집행이 지연됨.

2) 우크라이나는 2008년 하반기 이후 심화되는 경제위기와 금융산업내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11월 IMF와 164억 달러(110억 SDR) 규모의 대기성차관을 2년간 지원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합의하였음. 2008년 11월 45억 달러(30억 SDR), 2009년 5월 28억 달러(19억 SDR), 2009년 7월 31억 달러(21억 SDR)가 집행됨.

- 우크라이나 정부는 금년 5월 2008년 말 체결된 현 IMF 구제금융의 집행 재개 및 추가 구제금융을 포함한 신규 자금지원(총 190억 달러, 지원기간 2.5년)에 대해 IMF와 협상을 진행하였음.
- 신정부 이후 정치적 안정, 러시아의 가스협상 타결 및 정부 예산 삭감(2010년 GDP의 5.4%)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IMF는 조만간 2009년 중단된 구제금융 지원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됨.

#### □ 외환보유액 안정세에 따른 양호한 대외 채무상환능력

- 최근 외환보유액 또한 안정세를 보여, 향후 단기외채 및 정부외채(2010년 말 기준 GDP의 약 27%, 정부보증을 포함할 경우 GDP의 36% 추정)에 대한 대외지불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금년 내 IMF 구제금융 집행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대외 채무상환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조사역 고안나 (☎ 02-3779-6660)

E-mail: [anna@koreaexim.go.kr](mailto:anna@koreaexim.go.kr)